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터넷이 중요한 사회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자료 및 정보검색 뿐 아니라, 이메일, SNS, 채팅, 인터넷 전화 등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하며 인터넷 발달로 인한 여러 이점을 경험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매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인 청소년에게서 특히 두드러질 수 있다(조남근, 양돈규, 2001).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아동부터 성인까지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중독위험군 비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위험군 비율은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중에서도 초등학생 9.7%, 중학생 13.2%, 고등학생 11.7%로 중학생 중독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넷 중독은 만족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시간동안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 내성과 인터넷 사용을 중단했을 때 정신운동 초조, 불안, 인터넷에 관한 환상 등을 경험하는 금단 증상을 포함하는 부적응적 인터넷 사용을 뜻한다(Goldberg, 1996, 제현채, 김정규, 2014에서 재인용). 그러나 실제로 인터넷으로 인한 폐해를 경험하여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반드시 내성과 금단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독’이라는 개념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박성길, 김창대, 2003). 이와 함께, 최근에는 ‘중독’ 보다는 더 일반적이고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과다사용’을 다룬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과다사용이란 절대적이거나 병리적인 중독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의존행동이 높아 인터넷 사용 시간 통제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홍경희, 2002). 본 연구는 임상군이 아닌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인터넷 중독보다는 인터넷 과다사용이 현상을 기술하는데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 과다사용의 구체적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개인적 특성인 자기애에 주목하였다.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이 물질중독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Grosch, 1994; Van Schoor, 1992). 인터넷 중독은 극심한 사용, 내성 증가, 금단 증상, 기능 손상 등 물질중독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중독적 행동문제 증후군’에 해당하는데(Hsieh et al., 2016), Kohut은 자기애적 장애(narcissistic disturbance)가 이러한 ‘중독’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즉, 자기애적 장애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긴장이나 자존감을 자기-조절하도록 해주는 내적인 심리구조의 부재로, 중독은 이러한 구조의 결함을 보상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Kohut에 따르면, 중독은 긴장을 줄이고 자존감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한다(Van Schoor, 1992에서 재인용). 최근 연구들은 약물이나 음식 뿐 아니라 인터넷 또한 이러한 중독 행동의 대상물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Griffiths, 2000; Young, 2004).

예를 들어,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자기-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감각과 성공이나 힘에 대한 환상을 온라인상에서 아이টে를 모으거나 더 나은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통해 드러내면서 온라인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된다(Kim, Namkoong, Ku, & Kim, 2008).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를 내보이는 것에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SNS 사용에 더 매혹될 가능성이 크다(Kuss & Griffiths, 2011). 이러한 설명은 자기애적 성향과 인터넷 중독 또는 과다사용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최근 들어 이 두 변인 간의 정적인 관련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두 유형은 모두 특권의식, 타인에 대한 무시, 거대한 자기-관련 환상과 같은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Besser & Priel, 2010). 그러나 자기의 중요성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고 과시 행동을 드러내며(Wink, 1991), 공격성이나 우세함을 종종 보이곤 하는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Miller et al., 2011)와 달리,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자기애 성향을 내재화하여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으며 오히려 열등감이나 취약성, 두려움, 불안정성, 방어성, 우울 등으로 표현하게 된다(Akhtar & Thomson, 1982; Dickinson & Pincus, 2003; Miller et al., 2011; Wink, 1991). 이들은 타인의 피드백에 과민할 뿐 아니라, 부정적 평가에 취약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중요한 존재로 보이고 싶은 강한 욕구가 좌절될 때 쉽게 수치심을 경험한다(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Dickinson & Pincus, 2003).

한편,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이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낮았던 것과 달리(강진옥, 2009),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평가, 특히 사회적 영역에서의 자기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또한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경우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가 거의 일치하고, 만약 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괴리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하며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던 반면(강진옥, 2009),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자기효능감이 낮았다(이상미, 이숙, 2009). 이처럼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훨씬 부적응적인 자기애로 분류되며(Atlas & Them, 2008, Brookes, 2015, Rose, 2002), 다양한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이러한 부정적 특성들은 인터넷 과다사용을 보이기 쉬운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과 일치한다. 즉, 우울, 낮은 자존감, 수줍음, 외로움 등은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김종범, 한종철, 2001; Chak & Leung, 2004; Young & Rogers, 1998), 우울, 낮은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유능감(임진숙, 강성국, 김성식, 2005), 사회적 불편감(이상주, 이약희, 2004) 등이 회귀분석 시 인터넷 중독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손정선(2010)은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쉬우며, 내현적 자기애 성향 중에서도 특히 착취/자기중심성이 강하고, 소심함/자신감 부족이 두드러질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외현적 자기애는 공격성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만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공격성을 매개로 해서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예측하였다(류경희, 홍혜영, 2014).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정구철, 문종호, 2015) 뿐 아니라, 고등학생의 인터넷 과다사용(이계정, 정남운, 2007) 역시 직접적으로 예측하였다. 이 때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대학생의 경우 분노표출을 매개로 SNS 중독 경향성을 예측하고(정구철, 문종호, 2015), 고등

학생의 경우 인터넷 보상경험, 즉 부정적 정서나 스트레스를 회피하거나 즐거움을 얻었던 주관적 경험을 매개하여 인터넷 과다사용을 간접적으로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이계정, 정남운, 2007),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인터넷 과다 사용 간의 관계에서 가능한 매개변인의 존재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와 인터넷 과다 사용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는 부적응적인 사회화 경험에 의해 활성화될 가능성을 지닌, 기질 특성이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Paulhus, 2001; Thomas, Bushman, De Castro, & Stegge, 2009) 상대적으로 개입으로 인한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개변인의 발견과 이해는 인터넷 과다사용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개입전략 개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매개변인으로 먼저, 자기개념 명료성에 주목하였다. 자기개념 명료성은 자기개념의 인지적 측면으로, 자기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고 확신이 있으며, 내적으로 일치되고 시간적으로 안정된 정도를 말한다(Campbell, Assanand, & Di Paula, 2003). 자기개념 명료성은 추상적 사고의 발달로 보다 정교하고 통합된 자기개념을 발달시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청소년기에 특히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정보를 혼란스럽게 느끼수록 자기개념 명료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양명희, 김은진, 2007). 특히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자신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며,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는 경향이 높아(손은경, 권해수, 2014; 최정문, 2013) 결과

적으로 자기개념이나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내현적 자기와 자기개념 명료성의 부적 상관관계는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다(손은경, 권해수, 2014; 최정문, 2013). 대학생 연구이긴 하나, 내현적 자기에 해당하는 자기개념 취약성은 자기개념 명료성을 매개하여, 낮은 자존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영, 2014). 마찬가지로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2007)의 대학생 연구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은 내현적 자기가 약한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들은 낮은 자기개념 명료성이 내현적 자기에 집단의 병리적 특징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한편, 강진옥(2009)의 중고등학생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가 높은 집단의 거의 모든 구성원은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은 집단에 포함되었다.

한편,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명료하지 못한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될 경우 이는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Israelashvili, Kim과 Bukobza(2012)의 연구에서 7-9학년생들이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헌신과 목적성, 신체적 정체성, 자기통제, 사회적 인식 등의 측면에서 측정된 자아 발달의 수준보다는 '자기'의 내용이 얼마나 명확하게 형성되고 일관되며, 안정적인지를 의미하는 자기개념 명료성과 훨씬 더 강한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아직 명확하게 자기개념이 정의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더 많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아직 자기개념이 통합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기보다는 일관되고 명료한 자기개념을 형성하려는 욕구로 인해 인터넷을 과

다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Valkenburg, Schouten와 Peter(2005)에 따르면 많은 초기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체성을 실험하는데, 이의 가장 큰 동기는 자기탐색이었다. 즉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이 가진 익명성으로 인해 사이버 상에서 자기가 가진 여러 측면들을 실험해보며 자기를 탐색한다. 또한 Kuss, Griffiths, Karila와 Billieux(2014)는 청소년들이 정체성 탐색의 어려움을 인터넷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인터넷 중독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면, 자기개념 명료성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더 많은 자기탐색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에 비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더 과민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박세란 등, 2005)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사회불안에 주목하게 되었다.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수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수치스러움을 겪게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APA, 2013). 이러한 사회불안은 보통 사춘기 이전과 초기 청소년기부터 유의하게 증가하기 시작하고, 15세경에 절정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ncini, Van Ameringen, Bennett, Patterson, & Watson, 2005).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인지적 성숙으로 타인의 시선에 더욱 민감해지고 수행과 평가를 동반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접하게 되면서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예민한

것은 그 이면에 남들보다 잘나고 싶고, 특별한 인상을 주고 싶다는 웅대한 자기애적 욕구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실제로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불안 또는 사회불안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이 보고되어 왔다(권은미 등, 2009; 박영주, 정남운, 2013; Schurman, 2000).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인식이나 부정적인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와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내재화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며(Atlas & Them, 2008),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평가와 관련된 상황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Akhtar & Thomson, 1982).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계속해서 실망하게 되며, 이러한 취약한 자존감은 타인과의 관계를 발달시키는데 더 큰 불안을 경험하도록 한다(Dickinson & Pincus, 2003). 이러한 외부 평가에 대한 만성적인 과민성과 충족되지 않은 기대로 인한 실망감은 사회적 철수를 촉진하고 사회불안은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Gabbard, 1989; Gersten, 1991; Kraus & Reynolds, 2001; Wink, 1991).

뿐만 아니라 모호한 자기개념은 환경적 단서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고(DeMarree, Morrison, Wheeler, & Petty, 2011), 자기-관련 피드백에 반응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Campbell, Assanand, & Di Paula, 2003). 이와 관련하여 Guerrettaz, Chang, Hipple, Carroll과 Arkin(2014)은 자기개념 명료성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낮은 사람들이 외부의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자기관(self-view)을 형성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긍정적이지만 불안정한 자기관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을 때 위협을 더 크게 느끼고 분노나 공격성으로 표출하는 경

향이 있다는 선행연구(Baumeister, 1997, Stucke & Sporer, 2002에서 재인용)도 있다. 즉,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피드백에 민감할 뿐 아니라 외부의 위협을 더 많이 지각하여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를 불편해하고 피하려는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기 쉬움을 예측할 수 있다(손은경, 권혜수, 2014). Wilson과 Rapee(2006)는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성격 특성에 대한 자기-기술 평가에서 확신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자기-관련 결정을 하는 반응 시간 과제에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림을 밝혔다. 이는 낮은 자기개념 명료성이 사회불안에서 잠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Stopa, Brown, Luke와 Hirsch(2010)는 회귀분석 결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사회불안의 유일한 예측변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반복적으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며 현실세계에 고립되기 쉽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는 자신을 부담 없이 드러내고 타인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에 더욱 빠지게 되고 결국 중독의 모습까지 띄게 된다(Caplan, 2006). 실제로 황희은, 김향숙(2015)은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 사회불안이 SNS중독경향성을 예측함을 발견하였다. 즉,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오프라인 상호작용에 대한 부적응 및 회피를 보이고, 비교적 불안을 적게 느낄 수 있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의사소통에 더 몰입하고, 이는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과다사용의 관계에서 인지적 변인인 자기개념 명료

성과 정서적 변인인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이들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인터넷 과다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과다사용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2.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과다사용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3.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과다사용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성과 사회불안의 이중매개 효과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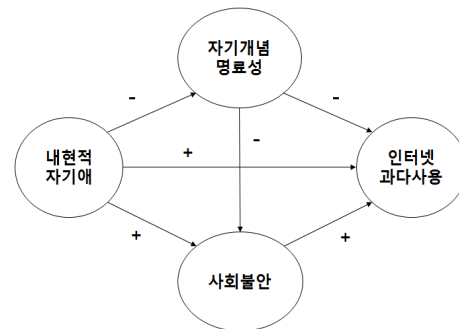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경기 및 경상 지역에 위치한 4개 중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481개의 설문지 중 각 척도에 대해 1개 이상의 문항에서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86명(21.8%)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95명($M=14.05$ 세, $SD=.67$)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은 261명(66.1%), 여학생은 134명(33.9%)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53명(13.7%), 2학년 232명(58.7%), 3학년 109명(27.6%)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인터넷 사용 빈도를 살펴본 결과, 거의 매일 사용이 312명(78.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주일에 4-5회 사용이 43명(10.8%)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4시간 이상이 120명(30.7%)으로 가장 많았고, 3-4시간 사용은 115명(29.0%), 2-3시간 사용과 1-2시간 사용은 각각 89명(22.4%), 43명(6.3%)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인터넷 과다사용

인터넷 과다사용(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이 개발하여 표준화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K-척도)를 사용하였다. K-척도는 유·아동용(관찰자용), 청소년용, 성인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만10세-19세인 청소년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 상에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과다사용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인터넷 과다사용의 원 척도는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가상적 대인관계지향성, 일탈행동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지만,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원척도와 달리 4요인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Hall, Snell과 Foust(1999)는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요인별 문항군집화(facet-representative parceling)를 사용하여 다차원성이 가정된 척도의 측정변인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인 4개를 생성하였다. Tabachnick과 Fidell(2001)의 제안에 따라, 요인부하량이 .30 이하로 낮게 나타난 마지막 요인(2문항)은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측정변인 3개(금단/ 가상적 대인관계지향성/ 내성+일상생활장애+일탈행동)를 생성하였다(총 13문항). 중학생 대상의 성미향, 홍혜영(2014)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α 는 전체 문항 .83, 각 측정변인 별로는 .76, .76, .78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

곽평호, 홍상환 그리고 한태희(2010)가 개발한 ‘아동용 자기애 척도’ 중에서 내현적 자기애 요인만을 사용하였다. 내현적 자기애 척도는 착취와 공격성, 과민성과 취약성, 자기중심성 등 3개 하위요인으로 총 18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 상에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척도와 같은 3요인 구조로 나타났으나(착취와 공격성/ 과민성과 취약성/ 자기중심성), 문항 3과 문항 18은 요인부하량이 낮아 제거하였다(총 16문항). 안지현, 이승연(2013)의 중학생 연구에서 $\alpha=.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88, 각 측정변인은 .72, .83, .82였다.

자기개념 명료성

Campbell 등(1996)이 개발하고, 12문항으로

축약한 ‘자기개념 명료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ale: SCC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대익(1998)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개념 명료성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신하는 정도가 높고 자기 지식들 간의 내적 일관성 및 자기 지식의 시간적 안정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단일차원인 자기개념 명료성 척도의 측정변인을 생성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하위요인별로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2요인 구조). 이 때, 요인부하량이 낮게 나타났던 문항 6과 11은 제외하였다(총 10문항). 임지영(2011)의 중고등학생 연구에서 $\alpha = .8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88, 각 측정변인별로 .86, .69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 척도

Lagrega와 Lopez(1998)의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를 양재원, 양윤란, 오경자(2008)가 변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불안척도(K-SAS-A)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이며, 각 문항의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일반적 사회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등 총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원척도와 동일한 요인구조가 성립하지 않았으며, 요인분석 결과 4요인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일반적 사회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1/ 일반적 사회상황에 대한 회피

와 불안 2/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이 중 마지막 요인(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의 3개 문항과 문항 11은 요인부하량이 낮아 제거하였으며(총 14문항), 이에 따라 총 3개의 측정변인을 생성하였다. 양재원 등(2008)의 연구에서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93, 측정변인별로 .92, .71, .83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2015년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약 한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후반부로 갈수록 피로효과에 의해 대상자의 응답이 불성실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측정도구의 제시 순서를 달리하여 두 개 유형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 실시 전 각 중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의 허락을 구하였으며, 설문은 담임교사의 감독 하에 각 교실에서 약 20분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기술 통계분석과 상관분석 등은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M-plu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연구문제의 검정에 앞서 주요 변인들의 최저점수, 최고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표 1. 주요 변인들의 점수 범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 (n=395)

	가능한 점수범위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침도
내현적 자기애	16-80	16-54	28.24	9.30	.73	-.31
자기개념 명료성	10-50	10-40	26.58	7.40	-.01	-.69
사회불안	15-70	15-50	24.84	8.22	.84	-.07
인터넷 과다사용	13-52	13-48	23.61	5.90	-.20	-.02

였으며, 측정 변인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침도를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Kline(2005)의 기준에 따르면 왜도의 절대값이 3이상, 침도의 절대값이 10이상인 경우 정규성 가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주요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2 참조), 대부분의 주요변인들이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각 변인의 총점 간 상관을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개념 명료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r=-.60, p<.01$)을 보였으며, 사회불안($r=.61, p<.01$), 인터넷 과다사용($r=.42,$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개념 명료성은 사회불안($r=-.61, p<.01$), 인터넷 과다사용($r=-.53,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사회불안은 인터넷 과다사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51, p<.01$).

각 측정변인의 하위요인들 간 상관 역시 동일한 패턴이었다. 즉,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료성 하위요인들 간에 부적 상관($r=-.33\sim-.55, p<.01$), 사회불안($r=.31\sim.70, p<.01$), 인터넷 과다사용 하위요인들($r=.16\sim.36, p<.01$)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료성과 사회불안($r=-.46\sim-.53, p<.01$), 인터넷 과다사용 하위요인 간($r=-.33\sim-.47, p<.01$)에는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고, 사회불안과 인터넷 과다사용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r=.27\sim.47, p<.01$).

측정모형의 검정

구조모형의 분석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각각의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χ^2 값이 127.159($df=38, p<.001$), 절대적 적합도 지수를 의미하는 RMSEA가 .078(90% 신뢰구간= .063-.093), SRMR은 .042, 상대적 적합도인 TLI와 CFI는 각각 .935, .955

표 2.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n=395)

	1	2	3	4
내현적 자기애	1			
자기개념 명료성	-.60**	1		
사회불안	.61**	-.61**	1	
인터넷 과다사용	.42**	-.53**	.51**	1

** $p<.01, *$ $p<.05$

로 나타났다. 보통 RMSEA는 0.05이하면 좋은 적합도, 0.08이 이하면 적절한 적합도, 0.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가진 모형으로 간주된다(Brown & Cudeck, 1993). SRMR은 .08이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모형으로 간주하며(Hu & Bentler, 1999), TLI와 CFI는 .90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간주된다(Bentler, 1990). 이에 따르면,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측정변인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Hair, Anderson, Tatham과 Black(1992)의 기준에 맞게 모두 .30이상이었으며, 11개의 측정변인으로 4개의 이론적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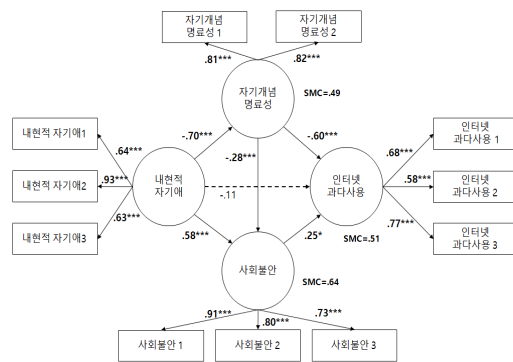
구조모형의 검정

자기개념 명료성과 사회불안이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과다사용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χ^2 값은 127.159(df=38, $p < .001$), RMSEA=.078(90% CI=.063-.093), SRMR=.042, TLI는 .935, CFI는 .955으로 연구

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분석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와 각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그림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내현적 자기애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으로 가는 경로와($\gamma = -.70$, $p < .001$) 자기개념 명료성에서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가는 경로($\beta = -.60$, $p < .001$)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모든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 $p < .05$, ** $p < .01$, *** $p < .001$.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내현적 자기애 → 자기개념 명료성	-.93	.09	-.70***
내현적 자기애 → 사회불안	.82	.11	.58***
내현적 자기애 → 인터넷 과다사용	-.11	.11	-.11
자기개념 명료성 → 사회불안	-.30	.08	-.28***
자기개념 명료성 → 인터넷 과다사용	-.46	.09	-.60***
사회불안 → 인터넷 과다사용	.18	.08	.25*

* $p < .05$, ** $p < .01$, *** $p < .001$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낮은 자기개념 명료성은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내현적 자기애에서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와($\gamma = .58, p < .001$) 사회불안에서 인터넷 중독으로 가는 경로($\beta = .25, p < .05$)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렇게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에서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기개념 명료성에서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beta = -.28, p < .001$) 자기개념 명료성이 떨어지면 사회불안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자기개념 명료성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 분석 시 나타난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본이 충분히 크고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지 않았으므로 Bootstrapping이 아닌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의 단순매개효과($Z = 4.743, p < .001$)와 사회불안의 단순매개효과($Z = 2.307,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다변량 델타 방법을 이용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을 때,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개념 명료성과 사회불안을 거쳐 인터넷 과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2.016, p < .05$).

논 의

본 연구는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성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먼저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 결과들과 같이 내현적 자기애는 인터넷 과다사용 및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 자기개념 명료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자기개념 명료성은 사회불안 및 인터넷 과다사용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불안과 인터넷 과다사용 간에는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애, 자기개념 명료성, 사회불안, 인터넷 과다사용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에서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중학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인터넷 과다사용을 보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다른 매개변인을 통해서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인터넷 중독 또는 과다사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선행연구들(예, 류경희, 홍혜영, 2014; 이계정, 정남운, 2007; 정구철, 문중호, 2015; 제현채, 김정규, 2014)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직접 효과보다는 인터넷 보상경험(이계정, 정남운, 2007)이나 경험회피(제현채, 김정규, 2014) 등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났던 선행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과다사용의 관계를 파악할 때, 두 변인 사이에 작용하는

매개변인들의 역할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에서 인터넷 과다사용 간의 경로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내현적 자기가 높을 경우 자기개념 명료성이 현격히 줄어들고, 이는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이어지는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해 일관되고 통합된 정보를 갖지 못하는 취약성을 가지며(이준득 등, 2007; 손은경, 권해수 2014), 내현적 자기에에 해당하는 자기애적 취약성이 자기개념 명료성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이선영, 2014)와 일치한다. 또한 청소년의 낮은 자기개념 명료성이 인터넷 과다사용을 예측하는 것을 밝힌 연구(Israelachvili et al., 2012) 역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한편, 아직 명확하게 자기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 상의 풍부한 정보를 활용하여 정체성을 탐색한다는 설명(Valkenburg et al., 2005)은 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인식론적 관심(epistemic interest)과 불안한 몰두를 반영하는 자기분석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Campbell et al., 1996). 인터넷 중독 또는 과다사용은 단순히 인터넷을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탐색을 위해 현실 속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외면한 채 가상의 사회적 공간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인터넷 사용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Israelachvili et al., 2012).

또한 내현적 자기에와 인터넷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역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불안의 완전매개효과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 속에서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부정적 결과를 두려워하게 되면서 결국 인터넷이라는 공간으로 철수하여 몰입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일찍이 Kohut은 중독이 자기애적 장애의 자기조절 결함을 보상하려는 시도로서, 긴장을 줄여주고 자존감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Van Schoor, 1992).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지닌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자신의 웅대한 자아상을 위협할지도 모를 외부 단서에 끊임없이 주목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타인의 반응이나 부정적 평가에 매우 민감하게 되고, 결국 사회적 상황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게 된다(정남운, 2001; 최인선, 최한나, 2013). 이들은 웅대한 자아상으로 인해 스스로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키기도 어려워 자신에게 더 쉽게 실망하게 되고(Dickinson & Pincus, 2003; Kraus & Reynolds, 2001), 자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회피나 철회에 의존하게 된다(손은경, 권해수, 2014). 실제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일수록 직접 대면 없이 대인관계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 더욱 빠지게 되어 결국 중독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Caplan, 2006).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불안이 높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자신의 대인관계 욕구를 인터넷을 통해 해소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Dickinson & Pincus, 2003; Erwin, Turk, Heimberg, Fresco, & Hantula, 2004; Schurman, 2000).

한편, 자기개념 명료성에서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 역시 유의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에와 인터넷 과다사용의 간의 관계에서 이 두

변인의 이중매개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개념 명료성이 부족함을 확인하고, 자기개념 명료성이 사회불안을 부적으로 예측함을 보여주었던 선행연구들(손은경, 권해수, 2014; Stopa, 2009; Stopa et al., 2010)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아직까지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유예(moratorium) 상태의 청소년이 가장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며(Marcia, 1980), 자기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불안이나 우울 등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인터넷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김동은, 장성숙, 2001)은 주목할 만하다. 정리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중학생의 경우 자기개념 명료성이 떨어지고, 이는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에 기여하면서, 결국 사이버 공간 상으로 회피하여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도록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중학생들의 인터넷 과다사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개입전략이 유용할 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인터넷 과다사용은 부적응적인 자기애로 알려져 있는 내현적 자기애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내현적 자기애는 인터넷 과다사용 뿐 아니라 다양한 정서적, 행동적 문제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구현경, 김종남, 2014; 조수진, 2009; Wink, 1991).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는 성격적 특성이므로 개입하기가 쉽지 않고 단기간의 치료적 개입을 통해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반면 자기개념 명료성은 인지적 측면으로 개입을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사회불안 역시 청소년기에 특히 두드러지는 정서적 특성으로 심리치료나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하

다(Heimberg, 2002; Hofmann, 2007; Rodebaugh, Hlaway, & Heimberg, 2004).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과다사용을 직접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과다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중학생들의 자기개념 명료성을 높이고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 간접적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하면서, 인터넷 과다사용 문제를 보이는 중학생이라면, 먼저 이들이 어느 정도 자기애에 대한 명확하고 통합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자기개념은 연령 증가와 함께 보다 정교하게 분화되고, 여러 모순되는 정보들을 의미 있게 통합시키면서 점차 안정적이 되어 간다(Harter, 1999, Steinberg, 2010에서 재인용). 청소년기 초기에 자기개념이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흔히 관찰되지만(Harter & Monsour, 1992), 앞서 언급했듯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은 외부의 피드백에 더 민감하고,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기대와 자주 충돌하게 되면서 자신을 일관되게 지각하지 못하고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손은경, 권해수, 2014; Dickinson & Pincus, 2003).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중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기개념 명료성이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담이나 치료 과정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특성, 욕구, 한계에 대해 보다 자유롭게 탐색하고 모순된 정보들을 통합하여 자기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Stopa(2009)는 긍정적 심상화를 통해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자기개념 명료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인터넷 과다사용이 자기개념 명료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는 설명 (Israelachvili et al., 2012)을 고려하여,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이 자기탐색을 위해 사이버 공간 뿐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보다 안전하게, 다양한 대인관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풍부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때 정체성 탐색 과정에서 흔히 경험되는 두려움이나 불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이 아닌 현실세계에 직면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확립하도록 돕는데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 연구의 중요한 매개변인이었던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불안이 높은 청소년들은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개입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나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측면보다는 상황 자체 혹은 외부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재훈련을 시키거나,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의도적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인지적 재구조화를 돕는 것이 사회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Hofmann, 2000). 인지행동치료는 특히 집단으로 실시되었을 때 더욱 효과적인데(Rice & Dolgin, 2008), 집단치료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안전감을 경험할 수 있는 구조화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역시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이 보이는 사이버 공간으로의 도피와 몰입은 사회불안을 감소시킴으로써 부적으로 강화되고, 이로 인해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의 기회는 더욱 부족하게 되어 결국 사회불안이 유지되거나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내현적 자기가 직접적으로는 인터넷 과다사용을 예측하지 못하기는 하지만,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인터넷 과다사용을 설명하는 기제의 중요한 시발점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안지현, 이승연(2013)은 생애 초기의 비밀관적이고 부적절한 부모양육으로 인해 열등한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과장된 자아상을 형성한다고 했던 Kohut의 주장에 따라, 내현적 자기를 줄이기 위해 생애 초기의 안정적 애착 형성과 부모교육을 제안한 바 있다. 즉,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인정과 공감을 받으며 병리적인 자기가 아닌 적응적인 자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회귀분석을 통해 인터넷 과다사용 또는 중독을 설명하는 변인들을 찾거나 내현적 자기와 인터넷 과다사용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일 매개변인의 효과를 살펴보았던 것과 달리, 자기개념 명료성이라는 인지적 변인과 사회불안이라는 정서적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인터넷 과다사용을 설명하는 보다 통합적인 기제를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자기개념 명료성과 사회불안은 청소년들의 발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변인으로, 중학생들의 인터넷 과다사용을 현실적으로 보다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인터넷 과다사용과 관련하여 자기개념 명료성에 주목한 국내연구는 드문 상황이며,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인터넷 과다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새롭고 발달적으로 적절한 개입 및 예방법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발견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으로 인해 신중하게 해석될 필

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만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였으므로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반응편향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제3자 평정도구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도구를 함께 사용하여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재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남녀 성비가 거의 2:1로 남학생이 훨씬 많았다. 인터넷 중독이 흔히 남학생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Yoo et al., 2004; Yoo, Cho, & Cha, 2014), 성별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남녀 성비를 비슷하게 표집하여 반복 검증하거나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의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이나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중학생만이 아니라 일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접근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인터넷 과다사용 수준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인터넷 과다사용의 문제가 훨씬 만성화되고 심각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옥 (2009). 청소년의 내, 외현적자기애와 자기개념 명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평호, 홍상황, 한태희 (2010). 아동용 자기애 척도의 구성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3), 333-352.
- 구현경, 김종남 (2014). 내현적 자기애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 부적응적 완벽주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609-636.
-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8(3), 627-642.
- 김대익 (1998). 한국인의 자아개념명료성에 대한 연구: 성격, 자의식, 행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은, 장성숙 (2011). 자기불일치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상담, 29, 89-110
- 김종범, 한종철 (2001).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 연구-자존감, 공격성, 외로움, 우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07-219.
- 류경희, 홍혜영 (2014). 중학생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8), 157-183.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 박성길, 김창대 (2003). 청소년 인터넷 과다사용의 위험요소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1(1), 84-95.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4(2), 255-266
- 박영주, 정남운 (2013).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4(1), 55-74.
- 손은경, 권혜수 (2014).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

- 성의 매개 효과. 청소년시설회경, 12(4), 153-161.
- 손정선 (2010). 내현적 자기애와 인지적 왜곡, 인터넷 사용 동기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지현, 이승연 (2013).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6(1), 61-84.
- 양명희, 김은진 (2007). 청소년의 분노와 자기개념 명확성, 성격 특성과의 관련성 탐구. 한국청소년연구, 18(1), 163-184.
- 양재원, 양윤란, 오경자 (2008).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우울 증상 간의 시간적 관계. 한국임상심리학회, 27(1), 35-50.
- 이계정, 정남운 (2007).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과 인터넷 보상경험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55-69.
- 이상미, 이숙 (2009). 기초연구: 내현적 자기애와 청소년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13(2), 15-28.
- 이상주, 이약희 (2004).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원인과 결과변인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5(2) 305-332.
- 이선영 (2014).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의 관계: 자기개념 구조의 역할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6(2), 463-477
- 임지영 (2011). 청소년의 자기애 및 자기개념 명료성과 분노행동양상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2(3), 305-325.
- 임진숙, 강성국, 김성식 (2005).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요인에 관한 연구.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8(2), 75-83
- 정구철, 문중호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 146-156.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애 척도(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제현채, 김정규 (2014).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 효과. 인지행동치료, 14(3), 477-489.
- 조남근, 양돈규 (2001). 사회정서발달: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91-111.
- 조수진 (2009).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성향,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우울간의 관계, 통합치료연구, 1(1), 19-33.
- 최인선, 최한나 (2013).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5), 2815-2831.
- 최정문 (2013). 내현적 자기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 검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경희 (2002). 중학생들의 인터넷 과다사용과 가정환경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인터넷 중독 진단척

- 도 고도화(3차) 연구 최종보고서.
- 황희은, 김향숙 (2015). 자존감, 사회불안 및 대인관계 지향성이 중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9), 233-253.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tlas, G. D., & Them, M. A. (2008). Narcissism and sensitivity to criticism: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urrent Psychology*, 27(1), 62-76.
- Besser, A., & Priel, B. (2010). Grandiose narcissism versus vulnerable narcissism in threatening situations: Emotional reactions to achievement failure and interpersonal reje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9(8), 874-902.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6-246.
- Brookes, J. (2015). The effect of overt and covert narcissism 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beyo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5, 172-175.
- Brown, W. J.,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ampbell, J. D., Assanand, S., & Paula, A. D. (2003). The structure of the self concept and its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1), 115-140.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
- Caplan, S. E. (2006). Relations among loneliness, social anxiety, and problematic Internet use. *CyberPsychology & Behavior*, 10(2), 234-242.
- Chak, K., & Leung, L. (2004). Shyness and locus of control as predictors of internet addiction and internet use. *CyberPsychology & Behavior*, 7(5), 559-570.
- DeMarree, K. G., Morrison, K. R., Wheeler, S. C., & Petty, R. E. (2011). Self-ambivalence and resistance to subtle self-change attemp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5). 674-686
- Dickinson, K. A., & Pincus, A. L. (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3), 188-207.
- Erwin, B. A., Turk, C. L., Heimberg, R. G., Fresco, D. M., & Hantula, D. A. (2004). The Internet: home to a severe population of individuals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8(5), 629-646.
- Gabbard, G. O. (1989). Two subtype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53, 527-532
- Gersten, S. P. (1991)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consists of two distinct subtypes. *Psychiatric Times*, 8, 25-26
- Griffiths, M. (2000). Does Internet and computer

- 'addiction' exist? Some case study evidence.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3(2), 211-218.
- Grosch, W. N. (1994). Narcissism: shame, rage and addiction. *Psychiatric Quarterly*, 65(1), 49-63.
- Guerrettaz, J., Chang, L., von Hippel, W., Carroll, P. J., & Arkin, R. M. (2014). Self-Concept Clarity: Buffering the Impact of Self-Evaluative Information.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12(4), 180-190.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2). *Multivariate Data Analysis* (3r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Hall, R. J., Snell, A. F., & Foust, M. S. (1999). Item parceling strategies in SEM: Investigating the subtle effects of unmodeled secondary construct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2(3), 233-256.
- Harter, S., & Monsour, A. (1992). Development analysis of conflict caused by opposing attributes in the adolescent self-portrait. *Developmental Psychology*, 28(2), 251.
- Heimberg, R. G. (2002).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social anxiety disorder: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Biological Psychiatry*, 51(1), 101-108.
- Hofmann, S. G. (2000). Self-focused attention before and after treatment of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7), 717-725.
- Hofmann, S. G. (2007). Cognitive factors that maintain social anxiety disorder: A comprehensive model and its treatment implications. *Cognitive Behaviour Therapy*, 36(4), 193-209.
- Hsieh, Y. P., Shen, A. C. T., Wei, H. S., Feng, J. Y., Huang, S. C. Y., & Hwa, H. L. (2016). Associations between child maltreatment, PTSD,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Taiwanese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6, 209-214.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 1-55.
- Israelashvili, M., Kim, T., & Bukobza, G. (2012). Adolescents' over-use of the cyber world - Internet addiction or identity exploration?. *Journal of Adolescence*, 35(2), 417-424.
- Kim, E. J., Namkoong, K., Ku, T., & Kim, S. J.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game addiction and aggression, self-control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traits. *European Psychiatry*, 23(3), 212-218.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Kraus, G., & Reynolds, D. J. (2001). The "AB-C's" of the Cluster B's: Identifying, understanding, and treating Cluster B personality disor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3), 345-373.
- Kuss, D. J., & Griffiths, M. D. (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9), 3528-3552.
- Kuss, D. J., Griffiths, M. D., Karila, L., & Billieux, J. (2014). Internet addiction: A

- systematic review of epidemiological research for the last decade. *Current Pharmaceutical Design*, 27(1), 1-8.
- Mancini, C., Van Ameringen, M., Bennett, M., Patterson, B., & Watson, C. (2005). Emerging treatments for child and adolescent social phobia: A review.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Psychopharmacology*, 15(4), 589 - 607.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9(11), 159-187.
- Miller, J. D., Hoffman, B. J., Gaughan, E. T., Gentile, B., Maples, J., & Keith Campbell, W. (2011).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A nomological network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79(5), 1013-1042.
- Paulhus, D. L. (2001). Normal narcissism: Two minimalist accounts. *Psychological Inquiry*, 12(4), 228-230.
- Rice, P., & Dolgin, K. G. (2008).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 (12th ed)*. Boston: Allyn & Bacon.
- Rodebaugh, T. L., Holaway, R. M., & Heimberg, R. G. (2004). The treatment of social anxiety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7), 883-908.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3), 379-391.
- Schurman, C. L. (2000). *Social phobia, shame and hypersensitive narcissism*. Doctoral Dissertation, Wright Institute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California, USA.
- Steinberg, L. (2010). *Adolescence (9th ed)*. New York: McGraw-Hill.
- Stopa, L. (2009). Why is the self important in understanding and treating social phobia?. *Cognitive Behaviour Therapy*, 38(S1), 48-54.
- Stopa, L., Brown, M. A., Luke, M. A., & Hirsch, C. R. (2010). Constructing a self: The role of self-structure and self-certainty in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10), 955-965.
- Stucke, T. S., & Sporer, S. L. (2002). When a grandiose self image is threatened: Narcissism and self concept clarity as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following ego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70(4), 509-532.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Boston: Allyn and Bacon.
- Thomaes, S., Bushman, B. J., De Castro, B. O., & Stegge, H. (2009). What makes narcissists bloom? A framework for research on the etiology and development of narcissism.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4), 1233-1247.
- Valkenburg, P. M., Schouten, A. P., & Peter, J. (2005). Adolescents' identity experiments on the Internet. *New Media & Society*, 7(3), 383-402.
- Van Schoor, E. (1992). Pathological narcissism and addiction: A self-psychology perspective.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6(3), 205-212.
- Wilson, J. K., & Rapee, R. M. (2006). Self-concept certain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1), 113-136.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 Yoo, H. J., Cho, S. C., Ha, J., Yune, S. K., Kim, S. J., Hwang, J., Chung, A., Sung, Y. H., & Lyoo, I. K. (2004).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symptoms and internet addiction.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58(5), 487-494.
- Yoo, Y. S., Cho, O. H., & Cha, K. S. (2014). Associations between overuse of the internet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ts. *Nursing and Health Sciences*, 16(2), 193-200.
- Young, K. S. (2004). Internet addiction a new clinical phenomenon and its consequenc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8(4), 402-415.
- Young, K. S., & Rogers, R. C.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1(1), 25-28.
- 원 고 접 수 일 : 2016. 02. 16.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4. 19.
최종게재결정일 : 2016. 04. 20.

The Relation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Internet Overus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Social Anxiety

Go-Eun No

Seung-Yeon Lee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social anxiety on the relations between overt narcissism and internet overus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consisted of 395 students (261 boys, 134 girls) drawn from four middle schools in Seoul, Gyeonggi and Gyeongnam regions. Their self-report data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indicat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or social anxiety between overt narcissism and internet overuse was significant. The dual-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and social anxiety was also significant. Covert narcissism did not directly predict internet overuse.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suggestions for interven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self-concept clarity, social anxiety, internet overuse*